

가정관리유형, 의사소통 및 가사협조도

- 청주시 가정을 중심으로 -

Homemanagement Pattern,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 Centering on Families of Cheong Ju City -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吳 京 姬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Kyung Hee, Oh

본 연구는 가정관리유형, 의사소통도 및 가사협조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가정내 일의 협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관리자의 관리유형 규명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자녀를 1명 이상 둔 청주시 주부 418명을 대상으로 1993년 12월 중순부터 1994년 1월초까지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자료는 SAS/PC program을 사용하여 Mean, F-test, t-test, Duncan's 사후검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중 가정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부부의 교육수준, 가정생활주기였다.
- 2)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중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연령과 교육수준,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가족형태였다.
- 3)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중 가사협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직업,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가족형태였다.
- 4) 가정관리유형, 의사소통 및 가사협조도 간에 관계를 경로분석하여 본 결과 가정관리유형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가사협조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부연하면 가정관리자가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을 취할수록 가족 내 의사소통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가사협조도도 증대된다.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에서 급속한 환경의 변화는 가정생활의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가정관리자가 매일의

생활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가정관리행동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관리자가 가정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 가족들이 목표달성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면서 조화롭게 살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가족을 사회화 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가정관리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가정관리자의 관리유형에 대한 규명과 가정관리 행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윤택유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이 가족간에 어느정도 원활히 소통되고 있는가의 정도를 파악하는 일 그리고 현 시대에 부부역할과 남녀역할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는 추세에 준하여 가정내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협동하는 정도를 알아내어 변화하는 현시대에 가정관리행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유형과 의사소통도 및 가사협조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훌륭한 가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정관리자의 자질 개발과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관리유형과 관련연구

가정관리란 가치와 목표를 명백히 하고 자원을 평가하며 정보를 수집하여 가능한 해결방법을 결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수행하여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Riebel, 1960 : 4). Mumaw(1967)는 가정관리란 의사결정과 조직적인 활동을 만들고 계획하는 인간행동적 과정이라 하였다. 즉 조직행동은 가정 일을 수행하는데 순서대로 행동을 유지 및 창조하는 행동으로 목표성취를 위해 알맞는 관리유형과 계획속에 자원과 행동을 결합시키는 것이다(Barclay, 1970). Nichols(1964)와 Fites(1964)는 가정내 일을 완수하는데 가족의 노력을 조직화하는 측면에서 관리자의 관리유형을 인간중심적 유형 즉, 인간의 성장발달에 주안점을 둔 것과 과업중심적 유형 즉 가정내 일의 성과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 결과 인간중심적 관리유형을 취할수록 가족성원으로 부터 가정내 일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유도하였다(Nichols, 1964). 채옥희(1987)와 지금수(1992)는 인간중심적 성향과 과업중심적 성향을 토대로 통합형 헌신형(과업중심형), 관련형(인간중심형), 분리형으로 관리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채옥희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관리유형이 통합형, 관련형, 헌신형, 분리형

순으로 많았고 주부연령, 결혼지속년수, 가족생활주기의 주부생활연륜에서 관리유형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생활연륜이 길수록 관련형이 많은 반면 생활연륜이 짧을수록 통합형이 많았다. 반면에 지금수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정자원 관리유형이 인간중심적 성향과 과업중심적 성향이 낮은 분리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과업중심형, 인간중심형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주부는 분리형을 나타내었다. 또한 기혼딸과 어머니 즉 세대간의 가정자원관리유형은 일치하는 경향이였다. 또한 어머니가 통합형, 인간중심형의 자원관리유형을 취할수록 관리능력이 높았고 기혼 딸의 경우도 같았다. 과업지향적인 관리양식은 특정한 목표성취 및 경제적 기술적 의사결정과 관련되고 인간지향적 관리양식은 인간의 최적의 발달에 목표를 두고 있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임정빈(1988)은 관리상의 의사결정 유형을 인간중심적 성향과 과업중심적 성향으로 구분하여 가치성향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즉 인간중심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부는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았고 인본주의 가치성향을 가진 사람은 인간중심적 의사결정을 하였다. 또한 부인연령이 30, 40대 생활주기가 확대후기 남편직업이 전문직, 판매 서비스 직일때 인간중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생활주기가 확립기, 축소기일 때 과업중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Nichols의 연구에 영향을 받은 오경희(1992)는 관리유형을 인간중심적과 과업중심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보활용수준 및 가족결속도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즉 인간중심적 관리유형을 취할수록 정보활용수준도 높고 가족결속도도 증대되었다. 또한 관리자가 미래지향적인 가치성향을 지닐수록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을 나타내었다.

2. 의사소통과 관련연구

의사소통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때 생기며 두 체계간의 정보의 흐름으로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Raush, 1974 : 18). 의사소통은 가족이 자기 이미지를 발달시키고 사회내에서 하나의 단위로 행동하므로써 생겨나는 과정의 부분이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의사소통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여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통할 수 있게 한다. 즉 자신의 생각, 느낌, 기대를 전달하는데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원이 지각하는 바에 따라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의사소통시에 서로가 관심사를 의논하도록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가족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의미를 공유하는 그 자체가 효율적인 적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은 의사소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선정, 조직, 배열하고 적절한 기호를 선택해서 기호화하는 메시지 처리방법에 달려있다. 즉 메시지 처리의 내용과 형태는 자신을 각자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방을 어떻게 예견하는가에 따라 변한다. 가족의 갈등상황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가족관계에도 긴장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서로간에 의미를 나누는 대화를 하므로써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특히 가정내에서 가족원간에 대화를 나누는 일은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결속력을 유도할 수 있다(Galbin & Brommel, 1982 : 22).

Wheeler(1971)는 가족간의 의사소통과 협동행동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즉 가정내 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협동과 부, 모, 아들의 인지적 의사소통은 의미있는 관계가 있고 반면에 딸의 협동행동은 인지적 의사소통과 관련이 없었다. 여기서 인지적 의사소통은 가정내 일을 하는데 있어 다루어야 할 방법, 기술, 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대화를 통하여 전달하고 받는 것을 말한다. 가족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 목표성취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관리상에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Deacon & Firebaugh, 1981 : 101). 또한 가족간의 의사소통 촉진과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가정생활의 제반문제와 불안감 해소 및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원만한 의사소통 관계에서는 송신자는 자신의 내적 긴장이 완화되고 경험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안정감이 확립되고 수신자는 상대방과의 접촉에 의해 정서적으로 안정 혹은 만족감을 얻으며 정보도 입수 가능하다.

이정우와 이정숙의 연구(1992)에서는 가정내 의사소통이 가정관리행동의 유의미한 영향변인임을 입증하였다. 즉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가정관리행동을 촉진시킨다. 또한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부간의 의

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김은숙, 1983). 결국 의사소통은 가족들의 생활의 활력에 큰 원인 것이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원의 욕구와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목적에 맞도록 자원을 선택 사용하게끔 유도할 수 있으므로 관리행동을 지원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3. 가사협조와 관련연구

가정내 일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가족원 모두 집안일을 가족 모두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하고(임정빈 등, 1994 : 371) 가족원들이 가정관리자를 돕는 행동은 가정내 일을 원만히 수행 및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을 수행하는 성과는 개인의 수행능력과 노력은 물론 타인의 협조여부, 물리적 환경여건, 일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관리자는 가족원이 지닌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시적소에 잠재된 자원을 배분하고 가족원 개인의 능력에 맞는 일을 분배하여 수행하도록 유도하므로써 과업수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Wheeler(1971)는 일의 수행에서 가족간의 상호작용의 개념을 목표를 향한 협동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협동은 관리행동의 행동적 양상으로서 조직, 의사결정수행 목표의 효율화 통제하기와 관련되며 또한 협동은 분석, 평가, 조정 및 다음번의 재수행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Nichols(1964)의 연구에서도 협동하고자 하는 동인이 가장 높을 때 일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으며 반면에 일을 위임하거나 감독할 시 방임이나 통제부족으로 지나친 인간중심적 성향을 추구하는 경우 참여도가 가장 낮았다. 이길표 등(1991)은 남편들의 가정경영관의 의식이 높을수록 주생활 영역과 육아, 가족시중, 가정경영 영역에 협조를 가장 많이 하며 취업주부 가정의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이 비취업 주부의 가정에 비해 더 높았다고 하였다. Wheeler와 Arvey(1981)는 결혼생활기간이 길수록 남편은 남성이 주로하는 일을 더 많이 수행하며 여성이 주로하는 일은 덜 수행한다고 하였다. 취학전 자녀를 둔 가정의 남편은 부부가 함께 하는 일에 대해 협조도가 증가하였으며 반면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남편은

가정의 전반적인 일에 대한 협조도가 낮았다. 또한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일과 육아에 대한 남편의 협조도가 증가하였고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일에는 협조도가 증가한 반면 남성이 주로 하는 일에서는 감소하였다(송혜림, 1988). 한편, 자녀의 가사참여에 대한 연구(두경자, 1981)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가사작업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를 가사작업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사작업에 많이 참여한 아동일수록 사회성, 책임성, 활동성, 사려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4. 가정관리유형, 의사소통 및 가사협조 간의 관계

가정체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는 의사결정을 하여 가정의 목표성취를 추구한다. 의사결정은 가정관리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가정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과 가치관이나 표준에 비추어 하나 또는 여러 행동과정의 조합을 선택하는 활동이다 또한 의사결정은 가족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의사소통은 개인 및 가족의 목표수립은 물론 성취와 가족의 협동에도 주요한 수단이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가정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며 가족체계를 한데 묶어주는 활력의 근원이다. 특히 가정관리자의 가치관은 가정관리 행동에 반영되며 가정관리자의 인성적 속성이 관리행동으로 표출될 때 특유한 관리유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의사소통은 관리행동으로 발현되어 가족내에 전이되는 가치관과 정보의 흐름을 매개해 주고 가족 간의 협동과 지지를 위한 응집력을 유도한다. 선행연구(오경희, 1992)에서 볼 때 가정관리자의 인적자원과 인성적 속성이 행동으로 발현될 때 나타나는 관리유형은 관리행동에 반영되고 또한 관리행동을 통하여 끊임없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의사결정은

의사소통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의사소통은 가족을 한데 묶고 협동을 유도하는데 기여하므로(Wheeler, 1971; 오경희, 1992) 가정관리자의 관리유형과 의사소통 및 가사협조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유형과 의사소통도 및 가사협조도의 관계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유형은 어떠한 경향이며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 가정관리유형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주부의 연령, 주부학력, 주부직업, 남편학력, 남편연령, 남편직업,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도시 가정의 의사소통도는 어떠한가 이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2〉 의사소통도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도시 가정의 가사협조도는 어떠한가 이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3〉 가사협조도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가사협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영향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선정

가정관리 유형에 관한 문항은 Nichols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인간중심적 성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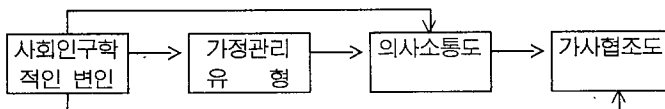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나타낸 10문항과 과업중심적 성향을 나타낸 10문항으로 항상 그렇게 한다를 5점, 전혀 그렇게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간에 내적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인간중심적 성향은 0.79였고 과업중심적 성향은 0.70이었다. 또한 가정내 의사소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한다를 5점으로, 전혀 그렇게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는 5점척도의 22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간에 내적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0.87이었다. 가정내 가사 협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항상 돕는다를 5점, 전혀 돕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의 21개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간의 내적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0.90이었다.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1명이상 둔 주부로서 30대, 40대 주부가 85.6%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부는 고졸이하가 대부분이고 남편은 고졸이상이 87%로 주부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다.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가 많으며 자녀가 2~3명인 가정이 대부분이고 자녀교육기에 있는 가정이 과반수 이상이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관련직이 가장 많았고 판매서어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 보다 행정관리, 사무관련,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독립변수	구 분	빈 도
주부연령	30세미만	30(7.2)
	30세-39세	188(45.3)
	40세-49세	167(40.3)
	50세이상	30(7.2)
남편연령	40세미만	145(35.9)
	40세-49세	186(46.0)
	50세이상	73(18.1)
자녀수	1명	35(8.4)
	2명	198(47.4)
	3명	113(27.0)
	4명이상	72(17.2)
가족형태	확대가족	79(19.1)
	핵 가족	335(80.9)
주부교육	중졸이하	132(31.8)
	고 졸	218(52.5)
	대졸이상	65(15.6)
주부직업	무	271(65.8)
	유	141(34.2)
남편교육	중졸이하	53(13)
	고 졸	182(44.6)
	대졸이상	173(42.4)
소득	100만원 미만	64(15.9)
	100만-199만	240(59.5)
	200만원 이상	99(24.6)
가정생활주기	확립기	69(16.6)
	국민교육기	111(26.7)
	중고등교육기	112(27.0)
	대학교육기	86(20.7)
	자녀독립기	37(8.9)

4.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를 위하여 1993년 12월 중순부터 1994년 1월 초까지 유아원, 초·중·고, 대학 교육기의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610부 배포하였으나 580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기재미비로 제외한 나머지 418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백분율, Mean, F-test, t-test, Duncan's 사후검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가정관리유형

청주시 주부의 가정관리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평균이 64.39로 중간값 63.5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의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가정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부의 교육수준, 가정생활주기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표 2. 가정관리유형의 일반적 경향

변수명	Min.	Max.	Mean	StD.
가정관리유형	44.00	83.00	64.39	5.65
의사소통도	33.00	108.00	77.60	12.20
가사협조도	25.00	110.00	69.31	16.09

인간중심적인 관리 경향이 높았다. 중졸이하의 주부보다 대졸이상의 주부가 인간중심적 관리경향이 더 높았고, 남편이 중졸이하 보다 고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가정의 경우 주부의 가정관리유형이 인간중심적인 경향이 더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Barclay, 19

70; 채옥희, 1987; 오경희, 1992; 임정빈, 198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Mumaw(1967)의 결과에 상반된다. 또한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을 나타내는 경향인데 특히 확립기 가정이 두드러졌다. 이는 확대 전 후기에 인간중심적인 경

표 3.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가정관리유형, 의사소통도 및 가사협조도

사회인구학적인변인		종속변인			가정관리유형			의사소통도			가사협조도		
		Mean	F	D	Mean	F	D	Mean	F	D			
주부연령	30세미만	66.00			78.71		A	70.76					
	30세-39세	65.03	2.53		80.20	6.46	A	66.76	2.59				
	40세-49세	63.60			75.58		B·A	71.29					
	50세이상	63.63			71.55		B	72.10					
주부교육	중졸이하	63.26		B	74.94		B	70.29					
	고 졸	64.63	4.30	B·A	78.54	4.33	A	69.31	0.67				
	대졸이상	65.81		A	79.70		A	67.37					
남편연령	40세미만	64.69			78.95		A	67.40		B			
	40세-49세	64.31	0.36		78.18	5.53	A	69.66	2.18	B·A			
	50세이상	64.00			73.06		B	72.26		A			
남편교육	중졸이하	62.16		B	75.13		B	72.94		A			
	고 졸	64.22	7.12	A	77.10	2.21	B·A	69.80	2.51	B·A			
	대졸이상	65.41		A	78.93		A	67.56		B			
소 득	100만원 미만	64.91			76.48			69.50					
	100만원-199만원	64.05	0.99		77.61	0.52		68.72	0.46				
	200만원 이상	64.89			78.49			70.63					
남편직업	단순노무	63.66			76.53		B·A	72.16		A			
	판매서비스	63.38			76.14		B	70.19		A			
	행정관리	65.23		1.59	80.00	2.05	B·A	63.14	2.60	B			
	사무관련	64.72			76.96		B·A	67.76		B·A			
	전문기술	65.35			81.18		A	68.15		B·A			
가정생활 주 기	확립기	66.00		A	78.34		A	67.68		B·A			
	국민교육	64.99		B·A	80.95		A	65.32		B			
	중고등교육	63.57	2.38	B	77.04	5.28	A	70.90	2.93	B·A			
	대학교육	63.58		B	76.46		A	71.54		A			
	자녀독립	64.05		B·A	70.05		B	73.41		A			
자 녀 수	1명	65.76			77.11		A	65.56		B			
	2명	64.57	0.87		79.58	5.10	A	67.26	3.45	B·A			
	3명	64.09			77.35		A	72.82		A			
	4명이상	63.84			72.63		B	70.84		B·A			
가족형태	확 대	64.65			75.72			73.43					
	핵	64.30	0.43		78.04	-1.54		68.34	2.59	*			
주부직업	무	64.66			78.85			68.16					
	유	63.84	1.26		75.09	2.78		71.15	-1.71				

*P<.05 **P<.01 ***P<.001

향이 높고 확립기와 축소기인 가정의 주부가 과업중심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던 임정빈의 연구(1988)와 반대되는 경향이다. 확립기 가정의 주부가 인간중심적 및 과업중심적 성향이 낮은 분리형을 나타낸다고 한 채옥희의 연구(1987) 결과에도 일부 반대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2. 의사소통도

청주시 가정의 의사소통도는 평균이 77.60으로 중간값인 70.5를 상회하므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이정우·이정숙(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중 가정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부의 연령, 주부교육수준,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주부의 직업유무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 연령이 50세이상인 가정의 의사소통도가 다른 연령층의 가정보다 비교적 낮았다. 또한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도는 높는데 중졸이하의 주부보다 고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주부의 가정내 의사소통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자녀독립기의 가정내 의사소통도가 다른 생활주기에 있는 가정보다 낮았다. 이는 무자녀 신혼기에 가장 높다가 차츰 자녀 독립기로 갈수록 의사소통도가 낮아진다고 밝힌 김은숙(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취업주부의 가정보다 비취업 주부의 가정내 의사소통도가 약간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사소통도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가사협조도

청주시 가정의 가사협조도는 평균이 69.31로 중간값인 67.5를 상회하므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중 가사협조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남편의 직업,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가족형태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직업이 단순 노무직이나 판매·서비스직인 가정의 가사협조도가 행정관리직인 가정의 경우보다 비교적 높았다. 대학교육기 및 자녀독립기 가정이 자녀교육기 가정보다 가사협조도가 더 높았고 자녀수가 1명인 가정보다 3명인 가정의 가사협조도가 더 높았다. 또한 확대가족 형태의 가정이

핵가족 형태의 가정보다 가사협조도가 약간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가사협조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4. 가사협조도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력

가사협조도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사소통도를 매개변인으로 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중 주부의 직업유무와 가족형태는 명목척도이므로 더미변수(dummy var.)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VIF 와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VIF는 1.00~1.19사이였고 DW계수는 1.5~2.5 사이에 있음을 확인하고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정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주부의 연령($\beta = -0.13$), 남편의 교육수준($\beta = 0.18$)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도에는 가정관리 유형($\beta = 0.26$)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주부의 연령은 직·간접적인 영향($\beta = -0.13, -0.24$)을, 주부의 직업 유무($\beta = -0.12$)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그리고 남편의 교육수준은 의사소통도($\beta = 0.35$)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도에 영향을 미쳤던 가정관리유형, 주부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주부의 직업유무는 가사협조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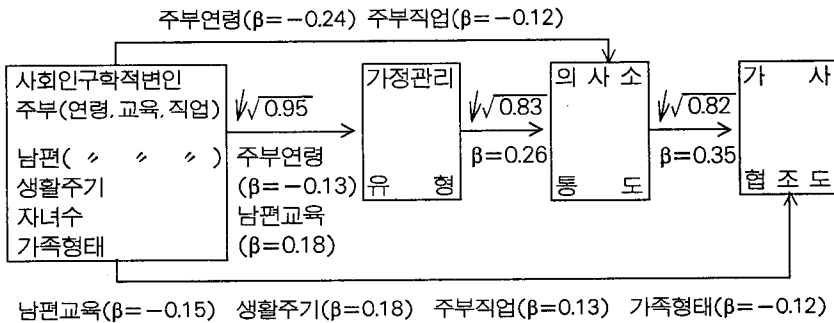
또한 남편의 교육수준($\beta = -0.15$), 가정생활주기($\beta = 0.18$), 가족형태($\beta = -0.12$)는 가사협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주부의 직업유무($\beta = 0.13, -0.12$)는 가사협조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주부의 연령이 어릴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주부의 관리유형은 인간중심적이며 주부가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을 나타내는 가정일수록 가족내 의사소통도가 높았다. 주부의 연령이 어린 가정일수록 가족내 의사소통도는 높았고, 반면에 주부가 취업한 가정일수록 의사소통도가 낮았다. 또한 가족간에 의사소통도가 높은 가정일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고, 주부가 취업한 가정이 그리고 가정생활주기가 자녀독립기에 가까울수록 가족간의 가사협조도가 높았다.

표 4. 가사 협조도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F	RSQ change	R ²	DW	VIF
가정관리유형	주부연령	-1.01	-0.13*	9.40***	0.04	0.05	2.06	1.00
	남편교육	1.50	0.18***					
의사소통도	관리유형	0.55	0.26***	16.00***	0.16	0.17	2.04	1.02
	주부연령	-4.15	-0.24**					1.01
	주부직업	-3.22	-0.12*					1.01
가사협조도	의사소통	0.45	0.35***	10.23***	0.16	0.18	1.97	1.19
	남편교육	-3.53	-0.15**					1.06
	생활주기	2.40	0.18**					1.09
	주부직업	4.36	0.13*					1.02
	가족형태	-4.79	-0.12*					1.03

*P<.05 **P<.01 ***P<.001

표 5. 가사협조도에 대한 경로분석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관리유형, 의사소통도, 가사협조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가정내 일의 협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관리자의 관리유형 규명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중 가정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의 교육수준과 가정생활주기였다.
- 2)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중 의사소통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의 연령과 부부의 교육수준,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가족형태였다.
- 3)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중 가사협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직업,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가족형태였다.

4) 가정관리유형, 의사소통도 및 가사협조도의 관계를 경로분석하여 본 결과 가정관리유형은 의사소통도에 영향을 미치고 가사협조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부가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을 취할수록 가족내 의사소통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가사협조도도 증대된다. 부부가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이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을 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아 부부의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은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가족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을 경영관리하는 관리자의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인간중심적인 관리유형은 인간의 성장발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족간의 화목과 단란을 위한

가사협조 및 분담등을 많이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주부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가정생활주기가 자녀 독립기에 있고 주부가 취업한 가정, 그리고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의사소통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녀가 독립하여 부부만 남는 빈둥지 시기를 맞게 될 때 부부간의 역할 재조정이나 의사소통이 좀더 원활히 이루어져 애정자원 관리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취업주부가정과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 가족의 잠재적 자원을 잘 파악하여 적시적소에 분배하고, 가족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켜야 가족원간의 마찰과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관리도 원활히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지역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부의 가정관리유형 연구와 가사협조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년기 이후의 부부와 가족간의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Program개발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김은숙(198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소통과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 상명사대석사논문.
- 2) 두경자(1981). 아동의 가사 작업 참여와 인성발달과의 관계. 상명사대 석사논문.

- 3) 송혜림(1986).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 석사논문.
- 4) 이정우 · 이정숙(1992).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0(3), 241-256.
- 5) 이길표 · 주영애 · 김인옥(1991).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하는 남편의 가정경영관과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 대한가정학회지 29(4), 81-97.
- 6)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 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대 박사논문.
- 7) 오경희(1992). 가정관리유형, 생활정보활용수준 및 가족결속도. 숙대 박사논문.
- 8) 지금수(1992).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 관리유형, 능력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숙대 박사논문.
- 9) 채옥희(1987). 가사노동의 조직화 및 관리자 유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 10) Barclay, N.A.(1970). Organizing of Household Activities By Home Managers The Ohio State Univ.- Ph.D.
- 11) Mumaw, C.R.(1967). Organization Patterns of Home Makers Related to Selected Dispositional & Situational Characteristics. The Penn. State Univ.-Ph.D. Nichols, A.(1964). Person Centered & Task Centered Styles of Organization. Michigan State Univ.- Ph.D.
- 12) Raush, H.(1974). Communication Conflict & Marriage. Jossey-Bass Inc.
- 13) Wheeler, sis. M.S.(1971). Communication Behavior & Task Collaboration In Families of Low Socio-Economic Levels. The Penn. State Univ.- Ph.D.